

인간을 이롭게 하는 디자인이란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지난 6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야외광장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 배우 유해진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휴머니티(HUMANITY)'를 주제로 화려한 개막과 함께 55일간 대장정에 들어갔다. 오세욱기자 dkoso@srb.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전세계 650명 작가 1천130점 작품
사람 온기 반증 '공유 퍼포먼스' 눈길
그래피티 포토존...사투리 작품도

'휴머니티(HUMANITY)'를 주제로 한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공식 개막했다. 올해로 8회째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0월말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 광주지역 곳곳에서 5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진다.

이 자리에는 전세계 50여개국 디자이너 650여명이 참석해 1천1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기업들도 120여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진 전시물을 내놓는다.

◆주제관별 퍼포먼스 눈길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 전시에서는 '사람을 노래하다', '다음 세대에 주는 선물' 등 5개관 6개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전시장 앞 광장과 브릿지에는 상징조형물 '다름과 공생'이 관람객을 먼저 반긴다. 특히 광장 한 가운데 위치한 '어반 블룸(Urban Bloom)'은 실험적인 팝업가든으로, 녹색의 파릇파릇한 풀 등을 소재로 구성된 싱그러움을 더한다.

본 전시 입구에 들어서면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드러내고자 한 '휴머니티'와 관련된 상징적 이야기들을 다채롭게 만날 수 있다. 첫번째 작품인 인트로 미디어는 강이연 작가의 '자각몽(Lucid Dream)'이다. 동굴길은 터널을 거닐며

우리가 현재 진실로 깨어 있는가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지는 작품은 혼합형실 콘텐츠기업 닷밀(.mill)의 미디어 맵핑이다. 사각의 벽면체를 반복해서 걸어가는 형형색색 사람들의 다양한 미디어 영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3번째 미디어에서는 헝가리 출신의 작가 키스 미크로스(Kiss Miklos)의 작품 '볼룸(Ball Room)'을 만날 수 있다. 현대인의 감정을 대변하는 노란 이모티콘이 공으로 구성된 관람객들에게 편안하면서도 익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덜란드 대표 디자이너 댄 루스가 르네(Daan Roosegaarde)의 '돔(Dome)'은 사람의 온기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작품. 자유롭게 만지고 느낄 수 있다.

'휴머니티'의 따뜻함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공유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돼 관람객들의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디자인 역사 재조명
주제관과 함께 눈여겨 볼 전시관은 국제관이다. 이곳에서는 '다음 세대에 주는 선물'을 주제로 세계 디자인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바우하우스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바우하우스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한 전시인 '바우하우스'와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과 협연전이 펼쳐진다.

'바우하우스'에서는 14개팀의 크리에이티브들이 각자의 다양한 시각에서 바우하우스를 재해석한 작품이 선보인다. 바우하우스의 역사와 개요부터 마스터 피스 작품들,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아이콘



이용섭 시장과 참석 내외귀빈들이 세계 50개국 1천130여점이 내걸린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인 월터그로피우스가 디자인한 바우하우스 테사우의 축소모형인 건축 구조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협연전에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의 22곳의 공동생활 프로젝트의 모형을 새롭게 구성된 가상의 도시 형태로 구현해 보여준다. 여기에 독일의 크리에이티브 다니엘 뷔샤드가 활용한 공동체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 함께 전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스마트 시티 등 체험
시민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에서는 '응답하라, 너, 나, 우리!'를 주제로 관람객에게 휴식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자동차와 실버자전거 등 미래운송수단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를 체험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학교와

회사를 오가고 실시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미래는 상상이 아닌 머지않은 우리의 현실임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휴머니티의 주거와 생활공간, 휴머니티의 생활제품이 함께 전시돼 배려의 디자인에 대한 내용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전라도 사투리를 활용한 디자인 제품 등이 다채롭게 선보여 흥미를 더한다.

위성호 (재)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은 "8회째인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휴머니티'를 주제로 디자인을 중심으로 인간본질을 탐구하고자 했다"며 "많은 관람객들이 이번 행사를 즐겁게 만끽하고 디자인과 우리 사회의 관계, 발전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음악으로 느끼는 바로크시대 풍경



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월요콘서트
디엠티아트컴퍼니 '윈더폴 바로크20'

바로크 시대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월요콘서트 '윈더폴 바로크 20'이 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디엠티아트컴퍼니의 '바로크시대 음악여행'을 선보인다.

공연은 독일, 이탈리아, 영국 바로크 음악의 놀라운 에너지와 활력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다울랜드, 헨리 퍼셀, 스카틀라티, 비발디, 헨델, 바흐 등의 솔로와 중창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다울랜드의 '달콤한 연인이여' '흘러라 내 눈물이어'를 비롯, 퍼셀의 '음악은 잠시동안', 카치니의 '아베마리아와 '아마릴리 내 사랑', 체스티의 '나의 님 계신 주위에', 카릿시미의 '승리다, 내 마음이어', 스카틀라티의 '태양은 이미 갠지스 강에' '제비꽃', 비발디의 '나는 경멸 받은 아내', 헨델의 '올게 하소서' '라르고' 등이 연주된다.

이번 무대를 꾸미는 디엠티아트컴퍼니는 아름다운 꿈을 향한 도전을 추구하며 생동감 넘치는 노래로 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팝페라 등 다양한 색깔의 음악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열정적인 분위기로 진한 감동을 함께하고 있다.

공연은 전석 초대이며 선착순 100명이다. 문의 062-670-7942. 김혜진기자 hj@srb.co.kr

올 가을엔 우주로 날아볼까요

국립광주과학관 '우주로의 도전'

오는 11일부터 12월1일까지
우주정거장·착륙 VR 체험 등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이 11일부터 우주를 주제로 하는 특별기획전을 새롭게 선보인다.

'달 착륙 50주년 기념 특별전 : 우주로 올 가을엔 우주로 날아볼까요' 전 (이하 우주 특별전)은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기획전실에서 선보인다.

화폭에 그려낸 미술 담론

조선대 미술대학원 'white hole' 전
11일까지 전시...작가 20여명 참여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석·박사들이 작가 중심의 새로운 창작 담론을 제시하기 위한 전시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조선대 미술대학원은 오는 11일까지 조대 미술관에서 '화이트 홀(White Hole)'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석·박사 과정에 참여 중인 원생과 수료생 20여명을 비롯

우주 특별전은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크기 체험을 시작으로 3개의 전시 존을 갖추고 있다.

첫 번째 존은 '우주로 가기위한 인류의 노력'으로 미국항공우주국 NASA와 대한민국 우주개발에 활용된 각종 탐사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 존은 '달 : 우주탐험의 첫 걸음'을 주제로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인 체험, 달 착륙 VR 체험, 달 탐사선 조종 체험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존은 '화성 : 우주에서의 첫 삶'을 주제로 화성 테라포밍 탐사, 코딩을 활용한 화성탐사로봇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추석연휴 기간에는 경품증정, 무료관람 이벤트도 진행한다. 명절 연휴기간인 12일부터 15일까지(13일 추석당일 휴관) 3대가 함께 특별



전 관람 시 '달 시계'를 증정하며, 한복을 입고 과학관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특별전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우주 특별전은 광주·대구·부산 등 국립법안과학관 공동 특별전으로 대규모로 전국 순회전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지난 7~8월 국립대구과학관 개최에 이은 두번째 전시다.

관람료는 5천원 (단체 4천원)이다.

김혜진기자 hj@srb.co.kr

만되는 '화이트홀'은 미지의 4차원에 모든 것을 '발산'하는 개념을 뜻한다. 이는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새로운 창작의 확장성을 의미한다.

참여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한 동문전 차원의 친목이 아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미술 창작자들의 새로운 활동범위를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작가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새로운 미술가 집단의 전시 형식과 연구 발표의 장을 확대 개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